



정읍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9일 로맨스캠(연예빙자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새마을금협 이명지점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대상자인 A씨는 이달 2일 한도까지 바꾸며 고객을 이해하려는 고객의 행동을 수시로 여겨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는 손님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돈을 송금하려던 B씨의 휴대전화에서 SNS로 알게된 여성이 '캐나다 출신 여성 군관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어 있다', '너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표 구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빨리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보낸메시지를 확인, A씨와 경찰관의 끈질긴 설득 끝에 1,800여 만원의 금융사기를 막아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기전대, 심리검사 프로그램 '호응'

전주기전대학 토닥토닥 상담센터는 지난 7~8일 이틀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봄 심리검사 프로그램 '마음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주기전대학 재학생들의 진로 및 심리 지원을 위한 다차원적 개입의 일환으로 마련, 총 227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또한 토닥토닥 상담센터 수련생 5명과 졸업생 및 자원봉사자 4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참여 학생들은 "생각보다 간단한 심리검사를 통해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신기했다", "내가 알아가는 시간이 꽤 좋았다", "심리검사를 통해 응원과 조언을 얻어 감사했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수련생들 또한 "상담 후 학생들이 자신을 좀 더 이해했다고 말해주서 좋았다", "심리적 안정감을 얻은 학생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토닥토닥 상담센터 고경자 센터장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진로는 물론, 다양한 관계에서 겪는 고민과, 그 고민이 깊을수록 이를 혼자 감당하려는 경향이 크다"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읍성 기자



남원 덕과면, 지역주민들과 봄맞이 대청소

남원시 덕과면(면장 성월계)은 지역 주민들과 마을회관 일대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시작하며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 이번 대청소는 마을회관 내·외부 청소는 물론, 주변 환경 정비,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 등으로 한층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특히 이번 활동은 공식적인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활동이라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대청소를 마친 후에는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성월계 덕과면장은 "스스로 참여해 주신 주민들 덕분에 마을회관이 한층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자발적인 주민 활동이 지역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가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주행하며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차량 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규 구매되거나 명의를 변경된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남원소방서는 의무 대상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학교 안 작은 숲, 교실을 아이들의 쉼터로

농협은행 전북본부, 무주중앙초에 'NH교실숲' 제21호 조성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9일 무주중앙초등학교에 친환경 녹색교실인 'NH교실숲' 제21호를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훈 본부장, 전재완 무주중앙초 교장,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교실숲 21호' 현판식을 갖고, 11학년 182명의 학생들에게 멸종위기 II급식물인 파초일엽과 공기정화식물 아레카야자 등 205그루를 전달했다. NH교실숲은 학생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지구살리기 등 실천적 환경 교육을 위해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식물을 담은 스미 화분은 버려진 소재를 업사이클링한 투명페트병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번 교실숲 조성으로 인해 교내에는 연간 이산화탄소 37kg 및 미세먼지 104g이 흡수되고, 산소 442kg 생산이 기대된다. 한편 멸종위기 식물을 양육한 (주)트리플래닛은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학교에 제공한 205그루만큼 또 다른 멸종위기식물 205그루를 양육하여 생물 다양성 보존 사업을 이어나간다. 김성훈 본부장은 "자연과 교육이 만나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반려식물과 교실숲을 통해 아이들이 푸른 미래를 만들어갈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어 함께 만들어가는 'NH교실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9개 학교, 270학급에 5,7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NH그린액션', 'NH초록세상만들기' 등 2050 탄소중립 실천과 청소년 환경인식 제고위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 창업보육 입주기업, 스타트업 대회서 '두각'

6곳이 수상받아... 이차전지 등 기술력 인정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국경수) 입주 기업들이 '2025 도전! J-스타트업 콘테스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9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콘테스트에서 총 7개 입주 기업이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ECO융합심우연구원이 공동 운영하는 이 대회는 식품·바이오 등 전북 주력산업 분야에서 7년 미만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수상한 (농)주)피앤에프바이오오는 친환경 히트류 비료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 차별성과 가격 경쟁력에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푸드트럭용 이차전지 배터리팩을 개발한 서해테크(2년 연속 선정) △로봇 가시성 향상 전문기업 서주스틸산업(주) △모듈러 프레임 및 부스를 생산하는 (주)엘에스씨엔엠 △미세조류 배양 기반 향산화 화장품을 개발한 (주)엔피씨엔 △기능성 천연물 농축 정제를 수출하는 새봄코리아 △전통 간편식품을 만드는 미미손길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향후 1년간 사업화 자금과 함께 전문가 멘토링,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전북대 창업보육센터는 전주, 완주, 군산에 걸쳐 총 4개 센터를 운영, 기계·전자 메카트로닉스, 식품·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국경수 센터장은 "입주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최적화된 시스템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유망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성 기자



영예를 안았다.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향후 1년간 사업화 자금과 함께 전문가 멘토링,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전북대 창업보육센터는 전주, 완주, 군산에 걸쳐 총 4개 센터를 운영, 기계·전자 메카트로닉스, 식품·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국경수 센터장은 "입주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최적화된 시스템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유망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성 기자

정읍시장에 인종합복지관, 어버이날 맞아 어르신들께 감동 선사

'청춘대학' 프로그램 진행... 원예치유 수업·자살예방 교육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8일, 정읍시장에 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하고 따뜻한 시간이 마련됐다. 복지관은 청춘대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예치유 수업과 자살예방 교육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에게 감동과 힐링을 선사했다. 청춘대학은 복지관 이용자 중 60세 이상이 33.4%에 달한다는 통계 분석에 따라, 노년기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60세 이상 신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 12명이 참여해 총 30회에 걸쳐 진행되며, 뇌 건강, 마음 건강, 신체 건강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날 어버이날을 기념해 진행된 수업은 '감사의 화분'을 주제로 한 원예치유 활동으로 꾸며졌다. 참여 어르신들은 직접 케이션 등을 심고 화분을 만들어 정서적 안정을 찾았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노년기 자살 예방 교육도 함께 이뤄져 참여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준 감동을 자아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편, 복지관의 '청춘대학'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 강화를 위한 '뇌 건강교실', 정서 안정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마음 건강교실', 기초 체력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몸 건강교실' 등 다양한 맞춤형 강화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마지막 회차에는 소규모 졸업여행을 기획해 참가자들이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성덕면 의용소방대, 어버이날 맞아 짜장면 나눔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의용소방대(대장 박상준·김혜란)가 지난 8일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성덕의용소방대 짜장면 봉사'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100

여명의 지역 어르신들과 마을주민들이 참석해 따뜻한 한끼와 정을 나눴다. 의용소방대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천막을 설치하고 신선한 식재료로 직접 짜장면을 조리해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이날 약 500인분의 짜장면이 준비됐으며 행사장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포장한 음식을 직접 전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농협,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현장교육

전북농협은 지난 9일 전주한옥마을에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과정은 한국 전통문화체험 중심의 한복체험, 전통차 예절교육, 부채문화전시와 함께하는 디립신 만들기, 가족사진 찍기 등을 체험했다. 특히,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인식개선 교육과 더 맛있게 먹는 전주 비빔밥 만들기 체험 활동을 통해 쌀밥과 친근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경환 본부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문화적응과 농촌생활 정착을 위해 전북농협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은 다문화가족의 한국 문화 체험 및 화합과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는 농협중심농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협력사업 중 하나이다. /오상근 기자



고창소방서, 상반기 신규 의용소방대원 임용장 수여

고창소방서는 지난 8일, 고창소방서 3층 대회의실과 야외 훈련장에서 2025년 상반기 신규 의용소방대원 임용장 수여식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안전과 재난 대응에 앞장설 신규 의용소방대원 42명이 처음으로 공식 임용되는 뜻깊은 자리로, 각 대원에게 임용장이 수여되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직무교육은 의용소방대의 조직 체계와 역할, 임무 등 기본적인 소양 교육과 함께 실제 재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 대원들의 실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윤기열 대응예방과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사회의 재난 대응과 안전 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신규 대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 김산동, 못자리 파종 현장 방문

김제시 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벼농사의 첫 출발을 알리는 못자리 파종 현장인 순동을 방문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못자리 종자소독, 파종, 살치와 관리 등 적기에 맞춰 고품질 쌀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농가에서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농업인들은 "올해도 병해충방제, 못자리 상토, 소형농기계 등의 다양한 지원으로 손조롭게 영농준비를 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농인종합복지관 '마음 속 꽃 향수' 진행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종용)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우울예방프로그램 '마음 속 꽃 향수'가 5월 한달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사가 케이션 원예키트를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찾아가 함께 케이션 원예활동을 하며 소소하고 행복한 이야기로 훈훈한 시간을 만들어 고독감 및 우울감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했다. 원예활동은 노인들에게 익숙하고 만족도가 높아 접근성이 좋고, 심신건강증진과 스트레스 감소의 보조적인 대체 치료법으로 심리적 평안감과 삶의 에너지 확장 등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노인들의 우울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우울증 자가진단표를 통해 조기발견하여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가족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이종용 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보다 더욱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 훈훈한 마음을 전달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되겠다"고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Table with 3 columns: Location (e.g., 전주지사, 임실지사), Phone Number, and another column.